

2016년 5월 8일 (가정의 달) 가정: 삶의 가치가 풍성히 피어나야 할 곳(눅 15:25-32)

<도입>

영성가 헨리 나우엔 신부가 'Daybreak community' 에 도착했을 때 지적 장애인 공동체 교우들이 물었습니다. "하바드가 뭔데요?" 그는 그런 질문이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.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. "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. 이 사람들은 내가 하바드대 교수인 것과 공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긴 것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. 이곳에서 나는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."

그 후로 그는 공동체에서 전직 하바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 숨겨진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고 합니다.

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 싶은 것은 가족이란 세상 어디 곳에서보다 성취나 업적 이전에 '함께 함'만으로 큰 기쁨이 되고,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피어낼 수 있음에 대한 것입니다.

[1]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에 관한 것?

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 않고, 이제 눈 앞에 보이니까 좋아합니다. 어떤 무엇보다도 아들의 존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. 아버지에게 이것으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할 때 이러하십니다. 물론 우리가 무엇을 잘 해도 기뻐하시고, 못해도 사랑하시고 격려하십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는 그 자체(있는 그대로)를 기뻐하십니다.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자랍니다. 나를 받아주는 분 앞에서 살맛(!) 납니다. 그래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.

[2] 서로의 존재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이어야!

가족의 상대가 부모님이나, 배우자, 형 누나 동생일 때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고 함께 눈을 맞추고 있다는 그의 존재 가치의 소중함을 의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,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쉽게 빠지는 것은 자기 기준에 안 차면 염려와 불안 가운데 팽팽하게 상대와 맞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

[3] 훈련(고치는 것)은 두번째, 상대를 즐거워함이 첫번째!

지난 주일에 말씀 드린 것 중에 무엇에서든지 '조금 더'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도,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칩니다. 물론 discipline 은 필요합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, 있는 그대로의 모습, 다듬어지지 않고, 세련되지 않고, 부족해 보일지라도,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영혼의 자각이 일어날 때 가능해집니다.

그렇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, 특히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양가 감정의 미로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. 양가 감정 ambivalence (= 상반되는 감정이 병존되거나 교차)이 지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. 무슨 뜻입니까?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, 부모의 시도가 거북스럽고 싫은 것입니다. 여기서는 자기 삶이나 가족이나 무엇도 참 가치를 피워낼 수 없습니다. 그러나 함께 거함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참성장을 목표로 하는 discipline 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본문에서 돌아온 아들에게는 앞으로 아버지 집의 하나 하나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. 이제 본문 너머로 상상해 보면, 아버지는 아들의 성숙을 위한 길로 훈련해갈 것입니다. 이 훈련은 어색하고 힘들지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요.

첫째 아들은,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, 아버지의 존재의 가치도, 자신의 삶의 가치도 못 찾았습니다.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열등감과 정죄감입니다.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까 결국 하는 말은 '난 이 아이보다도 못합니까?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고요!' 따집니다.

아버지는 당신의 기쁨을 확실하게 다시 말합니다. “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**우리가**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” ‘우리가’ 즐거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. 가족이라면 과연 식구들에 대해 먼저 무엇을 기뻐해야겠는가, 이 말씀이죠.

<맺음>

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. 상대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내게 즐거운 일입니까?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, (또 양육자가) 소중하게 여겨주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.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중요한 삶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여기서 우리 삶의 가치는 더욱 더 풍성하게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.

<나눔의 질문>

1. 내가 생각하는 가족의 즐거움과 축복은 무엇입니까?
2. 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큰 편입니까?
3.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운 관계 속에서는 어떤 축복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?
4. 가정에서 나를 기뻐해주는 식구가 없다면 어떤 내면의 소유자가 될 것 같습니까?